

# (주)와임, 데이터분할기술 표준화를 기반으로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TTA 표준화본부 표준진흥단

## TTA 국내 표준 등재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응용서비스 시장진출 확대 가속화

(주)와임은 데이터분할기술(Data Split Technology)을 바탕으로 간편인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다양한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상용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용 데이터분할기술을 개발하여 클라우드산업협회에 표준화기술로 등재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2022년 TTA 표준 등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료를 포함한 각종 전문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기술을 개발하여 2022년 상반기 TTA 표준 신규과제 제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분할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건의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개별국 특허도 3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하고, 보안이 내재된 플랫폼 기술로 발전시켜 안전한 정보 이용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명 (주)와임

대표자 조래성

홈페이지 <http://www.waem.kr>

주요사업 데이터분할기술 기반의 간편인증, DB분할, 개인정보보호 등 제품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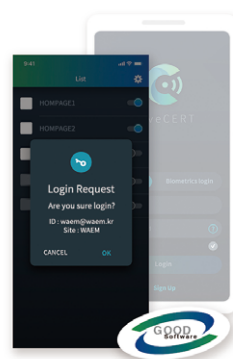
설립일 2015년 4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468호

##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자체 보안 기술 적용의 어려움

(주)와임은 데이터분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고민  
특히, 지문·홍채·장문 등 다양한 바이오 정보 이용이 늘고 있으며, 바이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등 안전한 활용 요구 증대

정보 유출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주)와임은 금융 및 상업서비스를 타겟으로 바이오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데이터분할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정보보호 기술을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정의와 사용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TTA의 장기집중자문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바이오 정보보호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표준화를 위해 2020년에도 계속 자문으로 진행하였다.



### (주)와임의 주요 성과 내용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정보보호 국제공동연구 선정, 미국특허 3건 등록</li> <li>'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TTA 표준 제정</li> </ul>
2020	클라우드산업협회 멀티 클라우드 표준 등재 및 강소기업 지정(고용노동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 정보보호 기술 표준기술 등재 및 TTA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 사례 선정</li> <li>'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TTA 표준 제정</li> </ul>
2018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기업 선정, 미국 특허 출원
2017	벤처기업 인증,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K-GLOBAL 300 기업 선정
2016	중국 F사 SmartFactory 사업 Middleware 및 데이터 보안 구축
2015	글로벌 K-스타트업 2015 보안부문 지원기업 선정

## 바이오 정보의 다양한 인증 및 민감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화

표준화 전문가의 자문으로 단계적 기술 개발 방향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바이오 정보를 다중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발 및 민감 정보 활용으로 확대 진행

2019년, 2020년에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분할기술 표준화에 대한 방향성과 바이오정보 이용 시스템 개발 방법을 확정하고, 표준에 반영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표준기술 자문을 통해서 바이오 정보와 일회성 보안 기술을 결합한 일회용 바이오인증 기술의 TTA 단체표준을 개발·제정하고자 하였다. (주)와임은 내부 구성원들이 표준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표준 초안 작성에 동참하는 등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금년 상반기 표준 제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바이오 정보보호 분야 표준전문가인 충북대학교 전명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자문을 포함한 지원활동은 (주)와임 구성원들의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고 모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표준화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TTA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통해 표준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표준화 준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제안된 표준안은 TTA 표준화 위원회에서 발표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TTA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주)와임은 TTA 표준화 활동을 위해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하고, 현재 PG505(바이오인식 프로젝트그룹), PG1003(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그룹), PG1004(빅데이터 프로젝트그룹) 등 다수 표준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표준화를 목표로 PG505 1건, PG1003 1건 등 2건의 표준안을 제출하여 추가적인 표준화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본 자문을 통하여 정보보호 및 바이오정보 활용과 관련한 표준화 동향 및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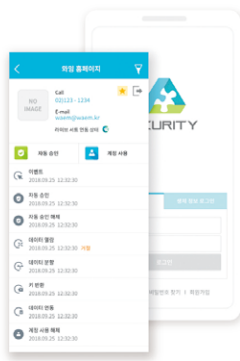
(주)와임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최신 동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소개</li> <li>• 표준 요구사항 수립 및 검토 후 국내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소개</li> <li>• 표준개발 대상 및 범위 검토, 재설정</li> <li>• 표준화 기구의 각 위원회 소개 및 개발 전략 수립</li> </ul>
바이오정보보호 표준화를 통한 국내의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선행표준 검토</li> <li>• 표준화 요소에 대한 기술 검토 및 논의</li> <li>• 개발기술의 표준적용이 부합되도록 방향 제시</li> <li>• 요구사항 항목별 작성 내용 자문</li> </ul>

법)과 EU GDPR 규정에 대한 동향 정보도 제공받았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표준 동향 정보는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본 자문을 통해 (주)와임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과 방향 설정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요 자문이 바이오정보와 관련한 기술에 집중되었지만, 그 외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지원으로 다양한 위원회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으로 기술의 활용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반석이 되어 줄 것이며 실제 국제 표준화 참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 데이터분할기술을 내재화한 표준기술 정립으로 글로벌 서비스 확대

내부 인력의 표준화 참여 및 표준기반 제품개발 경험으로 자체 고급 인력 양성 효과 단계적 기술 개발, 개발/서비스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선도적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고성장 발판 마련



(주)와임은 TTA 자문을 통해 기반기술인 데이터분할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응용기술개발과 표준화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과 세부적인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무엇을 정의하고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안 작성과 함께 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고 표준 제정을 할 수 있었다.

(주)와임은 자문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민감정보 기술,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추가적으로 국내 표준 등재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 성과를 바탕으로 'WAEM Vision 2025'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응용 및 확산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이 내재된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보안 내재형 오픈 플랫폼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을 관문기술로, 멀티 클라우드를 배경기술로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와임의 여정에 TTA의 자문과 지원이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